

프로라이프북

Pro-Life Book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아름다운피켓

1. 우리의 아이러니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이,
시간 지나면 인간이 되나요?**



처음부터 인간입니다



아기를 원할 때



아기를 원치 않을 때



아기는 **함상** 아기입니다.





인권을 위해,
인간을 제거한다구요..?





엄마의 배에
창문이 달려
있었다더라면..

세상에
낙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아기..



의료폐기물통에
낙태 후 버려진 아기..



같은 '아기'입니다.



"유기견을 보호합시다!"



우리의 반려동물들인데
유기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북극곰을 보호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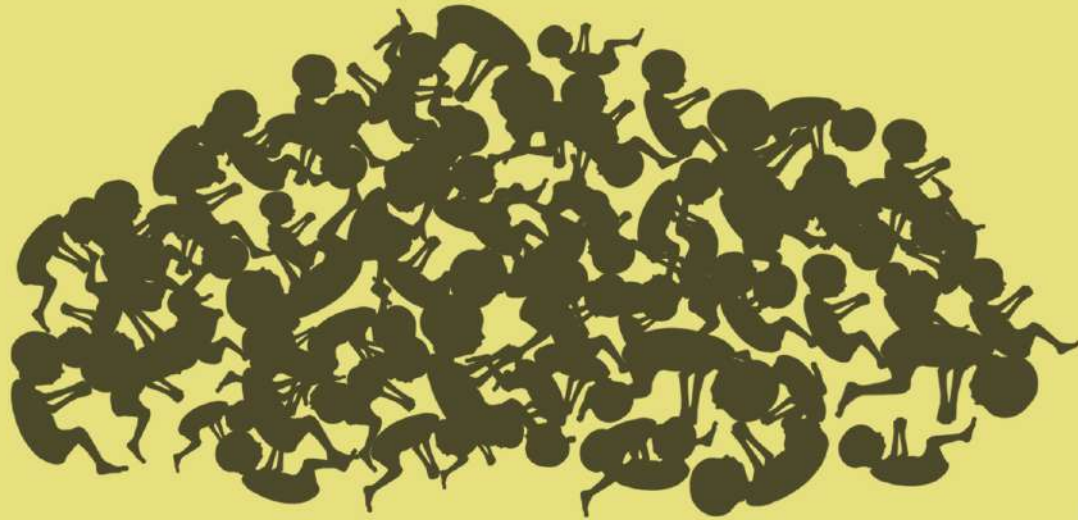
우리 후손들이 북극곰도
모르고 자라면 어떡해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선물해야죠

우리도 보호해 주세요..





대한민국 낙태 현황

2005년 복지부 발표, <연간 34만 건 추정>
2010년 복지부 발표, <연간 16만 건 추정>
2018년 복지부 발표, <연간 5만 건 추정>

정말 낙태가 감소했을까요?

그러나 2005년 산부인과 의사회는
불법 낙태를 포함해 연간 100만 건으로 추정하였으며,
2017년 한 빅데이터 연구진은 연간 50만 건으로 추정하였다.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을 활용한 낙태 검색량을 분석한 박명배(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부터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낙태 검색량이 뚜렷한 증가 및 감소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05년 복지부 발표자료를 기초하여도 연간 50만건(하루 1,30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건행정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천연기념물 '수달'

포획·채취·훼손·고사시킨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자신의 자녀, '태아'

14주 태아, 조건없이 낙태 가능
24주 태아, 사회·경제적 사유 시,
상담 후 낙태 가능





대한민국 사형제도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집행 이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죄' 있는


**흉악범
사형 폐지**



'죄' 없는

**나의 자녀
사형 가능**



A photograph of Ben Shapiro speaking at a podium. He is wearing a dark suit jacket over a light-colored button-down shirt. He has a serious expression and is gesturing with his right hand. The background is dark. Overlaid on the image is Korean text in white and black boxes.

아기가 자궁 안에서 낙태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아기가 자궁 밖에 있고
가슴에 칼을 찔렀다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권'이라 부릅니다.

Ben Shapiro **벤_샤피로**
(유대계 미국인, 변호사 겸 언론인)





이것이
세포 덩어리라면,



이것은 더 큰
세포 덩어리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낙태하면서까지
이루는 성공이, 정말 가치가 있나요?**



자라는 중

계속,
자라는 중



둘 다, 자라고 있는
소중한 아기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단 하나 뿐인
존재이니깐요.**



태아는 소중합니다.

**단 하나 뿐인
존재이니깐요.**



우리는 **먼저** 태어난 **사람**.
태아는 **이제** 태어날 **사람**.



"제 예쁜 아기의 사진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로 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생명을 매일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태아가 아기가 아닌, 단순한 세포 덩어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고 낙태를 하는 거죠"

임신 14주 아이를 유산으로 잃은 새런 서덜랜드의 페이스북 글. (2018.0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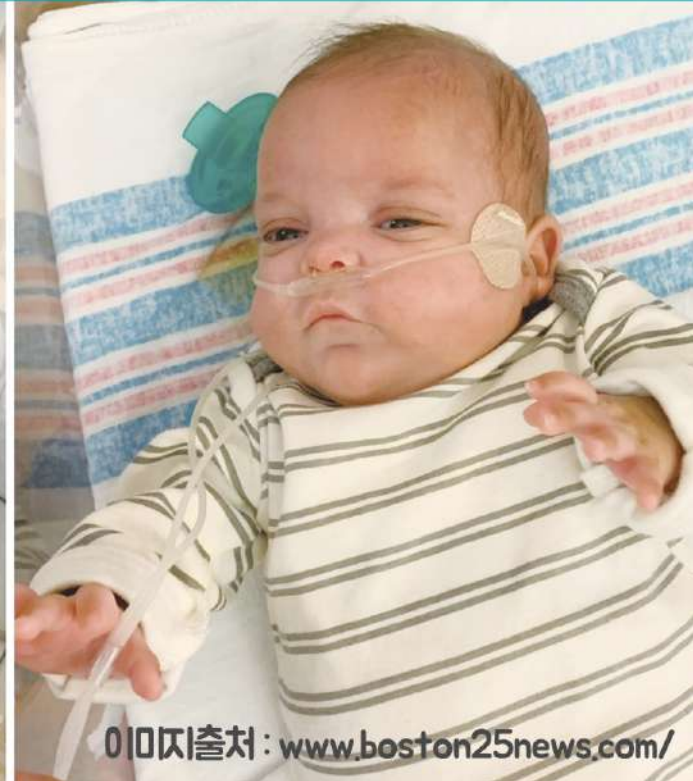
< 기네스북 >
생존에 성공한 가장 미숙한 신생아, '리처드'

리처드는 21주 2일 만에, 몸무게 330g 미숙아로 태어나
의료진들도 생존이 어렵다고 여겼지만,
기적적 회복과 함께 2021년 6월 5일, 첫 생일을 맞이했다.



22주에 태어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22주에 태어난 러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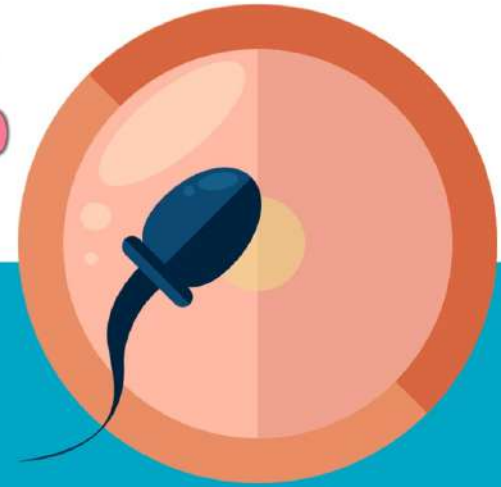
이미지출처: www.boston25news.com/

2. 낙태 논쟁에 대한 대답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생물학자 96%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 시부터,
"생명은 시작된다"

미국 시카고대학 스티브 제이콥스 박사는
5년 간 전 세계 1000개 기관,
5577명의 생물학자들에게 질문했고,
그중 96%에 해당하는 5337명이 이렇게 답변했다.



**“수정이 되면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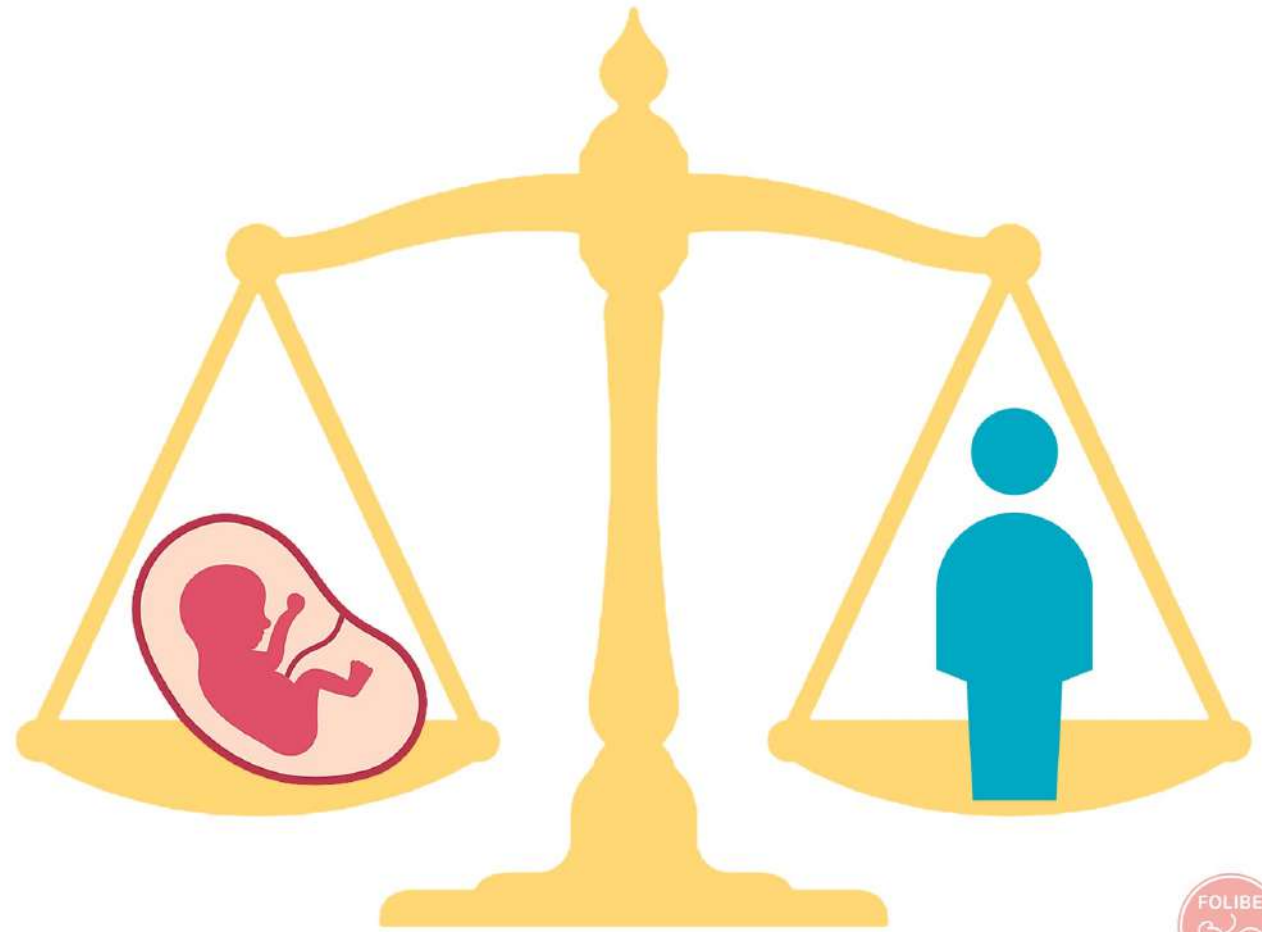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제롬 르즈느 박사
(Jerome Lejeune, 1926~1994)

**잉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지속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명백한 임상적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명입니다.



“나의 장애를 가지고, 낙태 핑계로 이용하지 마세요”

다운증후군 케빈(Kevin)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기는 없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
팔다리가 없는 닉을 처음 보았을 때,
그야말로 자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으로 초점이 변해가며,
아이를 대하는 태도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닉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팔다리가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은요?



닉 부이치치 (Nick Vujicic 1982~)
선청성 사지절단장애, 오스트레일리아 목사, 동기부여 연설가
사지없는 인생 'Life Without Limbs' 대표



Matt Walsh 매튜 월시
(미국 작가 & 칼럼리스트)

낙태는 '재생산권'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는 생산(임신)이 이미 발생한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생산권은 '임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입니다.

* 재생산권이란 :

모든 부부들과 개인이 자녀의 수, 간격,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일련의 권리들



낙태 = 임신 중단?

'임신 중단'은 낙태가 아닌,
임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태된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낙태는 '임신 중단'이 아닌, '살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외침

**낙태죄,
폐지하라!**



**폐지해야 할 것은,
죄 없는 태아
'낙태(살인)'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선택?

그럼 쌍둥이를 임신한 저는 심장이 세개,
뇌가 세개, 손가락이 30개인가요?



A woman with dreadlocks, wearing a pink top, is pointing towards a list of icons. The icons are: a heart, a brain, and a hand. Each icon is followed by a multiplication sign and a number: heart x 3, brain x 3, and hand x 30.

	x 3
	x 3
	x 30

FOLIBE

이미지 출처 : Live ACTION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해도 된다?

아버지의 죄로, 자녀가 죽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강간범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강간범: 인권 있음

MORE HUMAN RIGHTS



태아: 인권 없음

HUMAN RIGHTS



이미지 출처 : Live ACTION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소중하다?

'어떤 사람'은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고,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있었으며,
억압 받는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타인(태아)의 생사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기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를,
우리의 선택으로 낙태할 수 없습니다.

23 WEEKS:

이미지 출처 :
Live ACTION

같은 23주 아기



낙 태



조기분만



ABORTED

BORN & SURVIVED

- 자궁 이슈 -

자궁은 여성의 것이니,
낙태 해도 된다?

No



부모님 집에서 산다고,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의 소유인가요?

인격적 존재의 소유권은
그 인격체의 것입니다.

페미니스트와의 대화 1

페미니스트

내 자궁은
나의 것입니다.



프로라이프

당신의 자궁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궁의 아기는
당신의 몸이 아닌, 독립된 인간이며
당신이 돌봐주어야 할 당신의 자녀입니다.



페미니스트와의 대화 2

페미니스트

'그것'은
세포일 뿐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처음부터 암인 것처럼,
사람도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페미니스트와의 대화 3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권은
누군가의 생명권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행복권



생명권



성관계, '동의'하면 괜찮다?

성인으로서 서로 동의했으니,
성관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남녀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만 할 뿐,
피임이 실패할 경우 임태될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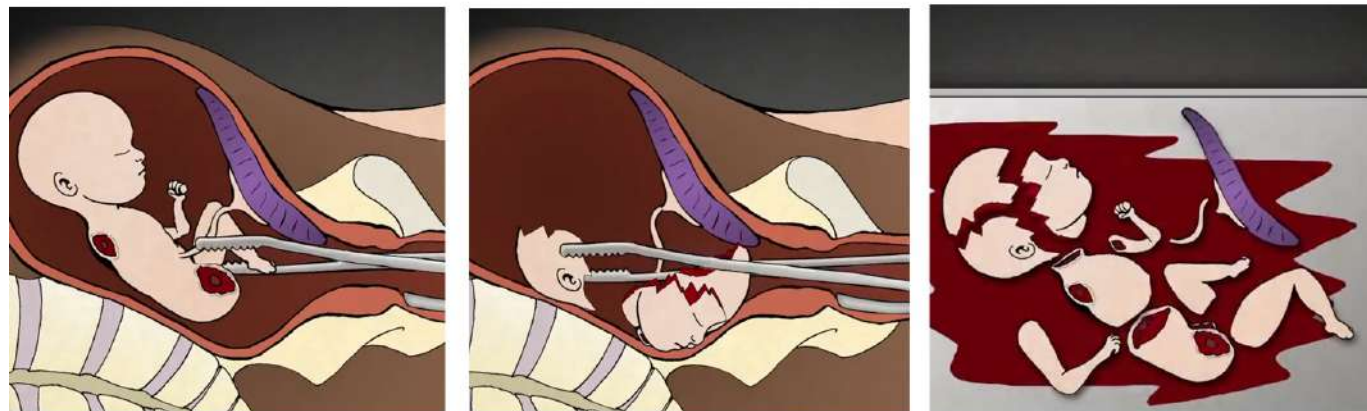
태아의 생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세요.





낙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시나요..?

임신 초기(5~13주)에는 강력한 진공 흡입으로 태아를 빨아들여 낙태하며..
임신 중기(13~25주)에는 태아가 커서, 뜯어내고 부수어 꺼냅니다..



[이미지 출처: LIVE ACTION] 번역된 영상은 유튜브 '포리베'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낙태의 두번째 피해자, 바로 여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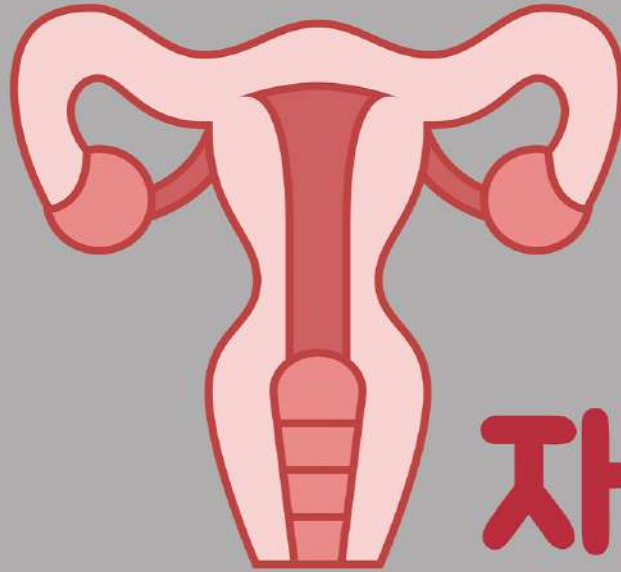
낙태 후유증

감염, 천공,
자궁외 임신,
유산, 불임,
우울증, 자살충동



낙태는 결코,
여성행복추구권이 아닙니다.





낙태 후
자궁상처,
착상되지 않아요

착상되지 않아요

그 낙태가 마지막
아기일수 있어요

3. 이제는 프로라이프!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프로라이프가 뭐죠??

프로라이프
Pro-Life

생명우선 & 낙태반대

여성의 행복권도 중요하지만
태아 생명권이 더 우선임을
주장하는 그룹

프로초이스
Pro-Choice

선택우선 & 낙태찬성

여성의 행복권을 위해,
임신중단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그룹





작고 연약한 존재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켜주어야 합니다.





Mr. 유기견 (from.브라질)

**쓰레기통에 버려진 땃줄 달린 아기를,
강아지도 구한답니다.**



“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

미식 축구 선수,
팀 티보 (Tim Tebow)



“ 우리는 당신의 아기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



Photo by Live Action



장기려박사 (1911-1995)

청빈과 봉사의 삶으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다

부산 장기려 박사님이 계신 병원에서
수련을 하던 때, 박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많겠습니까?
낙태로 죽는 아기가 많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보다
낙태로 죽어가는 아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닥터 박이,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낙태, 이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의사가 되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상은 원장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대표원장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 의원

우리는 누군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살 권리를 가진 태아입니다.





우리를 살려줄 정치인에게

☪ 투표해 주세요

진정한 남성은
여성과 태아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태아의 소중함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입니다.



〈 태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들 〉
“태아와 여성 모두 소중해요”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입니다.



제가 딸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은
“프로라이프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입니다.



어린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태아였잖아요”

우리는 ‘프로라이프 세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 [포리베]

태아 생명을 살릴 영상들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아름다운피켓]

태아 생명을 살릴 이미지들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 포리베는 아름다운피켓의 온라인 캠페인입니다 *

프로라이프북은 아름다운피켓에서 제작하고 SNS에 업로드하는 이미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피켓의 회원과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우리은행 1005-104-107090 아름다운피켓

www.beautifulpicket.com

아름다운피켓